

4/7 (시편 8:1-9)

우제윤

제목: 주님의 영광은 처음과 끝까지

1) 사람이 무엇이기에

2) 하나님의 은총

한줄요약: 무엇을 하든 주님 찬양

참고: 시편S주석, WBC주석, 카리스주석, HOW주석

자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가끔 출입문 스크린에 ‘시’가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시를 읽을 때 나의 고독한 마음을 알아줄 때도 있고 위로를 줄 때도, 어느 덧 잊고 살았던 좋은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시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시에는 다양한 것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 운율, 음악, 이미지, 감정, 정서, 호기심 등”을 자극하여 그 시에 대해 상상력을 더하게 해주어 내 삶과 시를 연결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주님의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늘을 덮을 정도로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정복하셨고 그의 위엄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랍길래 어린아이조차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만든 천지창조 속의 하늘, 달과 별을 보니 한탄의 마음이 나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어찌 우리를 기억하시고 친밀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건지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오니”라는 문장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 하늘, 달, 별, 은하수의 거대함 속에서 작은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인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성과 우주적 통치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과장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통치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총을 부어주셨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 행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생각은 첫 생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처음과 끝을 마무리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의 이름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 앞에 나아가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작음이 보일때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의 왕이 나라는 착각을 하며 하나님을 없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우주 만물을 보면서 사람에게 대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14 (눅 6:1-11)

우제윤

제목: 본래의 뜻

1) 안식일의 주인

2) 생명의 율법

한줄요약: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참고: WBC주석, 카리스주석, HOW주석

이 당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거리 중 하나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종교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부패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제도조차도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서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인간다운 삶이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기에 지도층과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배가 허기져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며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왜 불법이라고 생각했냐면 먹은 것이 죄가 아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탈곡하고 빵고 음식을 준비하는 노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엉뚱합니다. 이삭을 먹은 것을 죄로 보고 규정을 들먹거렸다면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는 권위개념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 존재는 누구이고 안식일의 개념 또한 주신이란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도 아닌데 그 뜻에 대해 알고 밝힐 수 있느냐는 물음을 던짐으로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라는 존재를 견제하기 위해 공적으로 고소할 근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해 그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은 가운데 세워 두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선행과 악행, 그리고 구원과 멸망의 개념으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법이 선과 악중에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한 것인가?, 생명을 구원할 것인가, 멸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확장해보는다면 율법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선인가 악인가, 구원인가 멸망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된 법정신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생명을 주기 위해 허락하신 수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율법이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옳아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4/21 (녹 10:25-37)

우제윤

제목: 진정한 제자의 삶

1) 마음을 다하는 사랑

2)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줄요약: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참고: WBC주석, 카리스주석, HOW주석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사는 공인된 유대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공인 받지 않은 예수라는 교사가 올바른 대답을 하는지 알기 위해 테스트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습니다. 영생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은 개인의 구원만 생각할 뿐 이웃사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을 기록하고 그가 어떻게 읽는지 돼 질문합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시하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의 범주에서 이방인, 나그네, 사마리아인 같은 부류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하였지만 이웃에 대한 문제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쏟았지 이웃의 문제는 도외시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다시 질문을 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다고 말합니다. 옳게 보이려고를 원문으로 본다면 ‘정당화하려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불편하였던 율법교사는 자신의 말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쓸데없는 질문을 던져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들면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반 죽은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외면하는 모습은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샅꾼 목자를 떠올리게 하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는 모습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였지만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긍휼히 여겨 그를 도움을 주고 돌보았습니다. 비유를 들은 율법교사는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한탄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값을 치려야만 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신의 지갑에서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도 시간을 드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일정에 차질을 가져 올 손해와 불편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런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28 (눅 19:1-10)

우제윤

제목: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

1) 잃어버렸던 삭개오

2) 회개의 열매

한줄요약: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세리입니다. 이는 로마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세금 징수를 많이 하여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던 이들이었죠. 삭개오는 세리중에 세리장으로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혐오의 존재이기에 아무도 근처에 오지 않고 친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재산이 많은 부자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극히 어려운 환경에 속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를 통과하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 옆에 있는 팥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 예수님을 보기 힘들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지 못할까 하여 어른이 체면조차 버리고 나무에 올라가는 추태까지 보이며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를 통해 넉넉한 재물이 있는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갈망과 동경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열망을 보여주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인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열망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응답하셔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기뻐는지 급히 내려와 그를 영접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는 갈망과 동시에 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히려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듯이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시며 내가 필요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자세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떤 자의 것을 속여 탈취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삭개오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삭개오의 신앙적 결단의 요점은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삶은 거두어들이는 것이며, 자기 안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탈취한 것에는 4배로 갚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행 20:35).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도 다시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주가 말씀을 영접함으로 삶이 180도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